

나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나주배' 지정 추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나주배연구회 등 5개 기관과 MOU

"역사성·농업적 가치 높이고 배 산업 활성화 시키는 계기 되길"

나주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나주배'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이화실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호남원예고등학교, 나주배원예농협, 나주배연구회, (사)남도학연구소 등 5개 기관과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가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업유산을 뜻한다.

100년 이상 농업·농촌지역 환

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며 형성시켜온 유·무형 농업자원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난 2013년 신설됐다.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생물 다양성·토지이용체계 등을 선정해 보전하고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2002년) 취지와 부합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농촌다원적자원 보전, 전승 및 활용사업 명목의 국비 예산지원을 통해 해당 농업유산에 대한 자원조사,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고 농업유산자문위원회 회의, 현장조사 등 지정 절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과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자료 공유, 보전관리, 활용사업, 홍보 분야 상호 공조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5개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나주 배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주배의 역사성과 농업

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써 배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곡성군, 석곡IC-겸면 도로 시설 개량공사 주민설명회 내년 8월까지 설계 완료

곡성군이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 대상 지역인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삼기면사무소, 겸면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곡성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내용과 진행 현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도 27호선 석곡IC-겸면 구간은 급커브 등 도로 구조가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도로를 개량하는 것은 곡성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곡성군은 2014년부터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 대상으로 해당 구간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수시로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타 면제 사업에 석곡IC-겸면 구간 도로 개량 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사업 구간은 총 연장 23.1km이며, 사업비로는 국비 1,460억 원이 투입된다.

작년 12월부터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1년 8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사업이 착수되면 편입토지 매입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명품 도로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폐쇄한 장성호 수변길을 오는 8월 1일부터 다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마다 1만 명이 방문하는 장성군의 대표적 인 관광 명소로, 호수 주위에 조성된 데크길을 걸으며 웅장한 호

장성호 수변길, 내달 다시 문 연다

'상품권 교환제'도 시행... 군, 철저한 방역 속 재개 방침

수와 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 엘모우 출렁다리와 황금빛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한 스릴을 만끽할 수도 있으며, 새롭게 조성 중인 호수 우측 '숲속길'도 명품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앞선 7월 초 장성군은 인근 시·군의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장성호 수변길을 폐쇄 조치하고, 의욕적으로 준비해왔던

상품권 교환제의 시행도 연기했다.

상품권 교환제는 관광객이 수변길 입장 시 교환소에 3000원을 내면 동일한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제도다. 돌려받은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5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수변길의 개방과 함께 상품권 교환제도 오는 8월 1일

부터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장성호의 관광 수요와 지역 상황을 연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장성호 수변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담양군, 2020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 '영농실습반' 수료식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 영농실습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방역 조치 아래 이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조치 철저

"직접 영농체험 해보니 방향 알 수 있어"

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지원과장이 참석해 우수 교육생에 대한

시상과 수료증을 배부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격려사, 단체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여한 교육생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직접 영농체험을 해보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의 농촌적응과 성공적인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평범한 속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